

## 규슈 올레 하이킹 코스

### 올레 하이킹 코스의 유래

올레라는 말은 한국의 제주도 방언에서 유래했습니다. 한국어로 길에서 집까지 연결된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을 의미합니다. 이 말이 제주도 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일련의 걷기 코스로 발전했습니다. 이 코스에서는 해변과 작은 마을부터 농장과 숲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.

### 제주도 코스

제주도에는 현재 26 개의 걷기 코스(21 개의 정규 코스와 5 개의 보조 코스)가 있으며, 전체 길이는 425km에 달합니다. 코스는 난이도가 다양하여 하이커는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워킹 코스 패스포트는 제주 올레 안내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, 하이커는 코스를 따라 스탬프를 수집하고 모든 코스를 완주하면 완주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규슈 올레 코스

규슈 올레는 제주 올레의 자매 길인 규슈의 21 개 워킹 코스(2021년 2월 시점)의 이름입니다. 규슈 올레는 원래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스로 일 년 내내 규슈의 사계절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각 코스는 제주 올레 조작이 엄격하게 규제, 감시하고 있으며, 공식 올레 코스로 인정받기 위해 코스는 알기 쉽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제주 올레와 마찬가지로 워킹 코스 패스포트는 규슈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, 하이커는 코스를 완주하면 스탬프 랠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규슈 올레의 모든 코스를 합친 거리는 200km 이상으로 중급자에서 상급자 하이커에게 추천합니다. 경로에는 다양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머리 부분이 코스의 방향을 가리키는 말 모양의 간세라고 불리는 표시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나무 화살표와 돌에 페인트를 칠한 화살표도 방향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. 또한, 리본이 100~2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 하이커가 코스를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게다가 안전을 위해 300m 간격으로 구조 지점(Rescue Point)이 표지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. 이정표는 모두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 파란색은 표준 걷기 코스를, 빨간색은 메인 코스에서 벗어난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